

[PRNewswire] Anton Bakov, 100년간의 공백 후 로마노프 왕조의 국가 복원 선언

-- 러시아의 군주제주의당 창당인, 12월 6일 예카테린부르크의 TASS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 개최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및 감비아 반출 2017년 12월 8일 PRNewswire=연합뉴스) Bakov에 따르면, 자신의 선언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예카테린부르크 시에서 신중하고도 상징적으로 공개됐다고 한다. 선언 장소로 이 도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곳에서 가장 참혹하고 무자비한 시해 행위의 목격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때, 기자들에게는 12월 1일 감비아의 수도 반줄에서 감비아 총비서 Dawda D. Fadera와 로마노프 제국의 외무장관 Modou Lamin Saidykhan 간에 체결된 감비아 공화국과 로마노프 제국 우의협력각서가 제공됐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236851-anton-bakov-restoration-romanov-dynasty/>

앞서 언급한 문서에 의하면, 서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 공화국은 로마노프 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곳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첫 정부인 셈이다. 이에 대한 답례로 로마노프 제국은 감비아의 예산에 미화 6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신생 로마노프 제국은 감비아 영해에 조성되는 10km² 면적의 인공 섬에 들어서게 된다. 모나코의 5배 크기인 이 섬의 영토는 로마노프 제국의 관할에 놓인다. 이 섬에는 아프리카에서 첫 스마트 시티인 신도시이자 제국의 수도인 세인트 니콜라스가 조성된다. 이 도시의 이름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살인 당한 성 니콜라스 2세를 기념한다.

Bakov의 선언에 의하면, 로마노프 제국은 가상국가의 서열제도에서 벗어나고, 부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된다. Bakov 자신이 로마노프 제국의 수상이자 대재상 자리를 맡는다.

로마노프 제국의 수반은 알렉산더 2세와 퀸 빅토리아의 5대손이자 키릴 1세의 증손자인 황제 니콜라스 3세다.

인공 섬 구상과 감비아 정부와의 대화는 6년 이상 걸렸으며, Bakov 일가에는 미화 6천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Bakov 일가의 가장과 함께 그의 아내 Marina와 아들 Ilya와 Mikhail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같은 뜻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큰 무리가 참여한다.

문의 - press@romanovempire.com

로마노프 제국 공식 웹사이트 - romanovempire.com